

익산시, 시민의견 귀담아 듣는 시정 편다

시의원·전문가 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 마련 지역현안·공공정책 수립 과정 사회적 합의점 도출

익산시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한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안시책 추진과 공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 시민 찬반이 상충되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모색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시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가 참여하게 된

다.
특히 사회적 덕망이 높고 중립적이며 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참여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을 경우 소집되며 전문지식을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여기에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공청회 또는 세

미나 등을 개최해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며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다산 유배지 강진 '사의재' 저잣거리 복원

21일 개장식...한옥체험 숙박시설 등 조성 관광명소화 추진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했던 강진 사의재(四直齋) 저잣거리(사진)가 옛 모습을 되찾아 관광지로 운영된다.
강진군은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저잣거리 개장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사의재를 중심으로 한옥체험 숙박시설, 다산의 정신을 배우는 다산강학당,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저잣거리, 동문생 공원정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에 약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사의재 저잣거리에서는 강진의 전통차 체험관과 동문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집합점이 들어섰다.
또 공예가들을 위한 공방을 비롯해 수제도장, 전통한과, 천연비누, 다산차 전

통주, 도자기 판매 및 체험 등 청년창업자들도 입점했다.
내년 3월부터는 조선시대 당시 시대와 인물을 해학적으로 재현한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4월부터는 다산 선생의 강진 유배기간 여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신바람 유량단의 '동문매반가' 공연도 진행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다산 실학사상의 모태인 사의재는 강진읍내권 관광의 핵심자원으로 세계모란공원, 영랑생가, 강진미술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읍내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저잣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고창군, 올 특별교부세 45억원 역대 최대 규모

고창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위험 시설정비 등 12억 5000만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올해 45억6000만원의 특교세를 교부받았다.
이 같은 특교세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군은 지난 2015년 34억6500만원, 2016년 27억5200만원, 지난해 36억3000만원의 특교세를 확보하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해 왔다.
이번에 확보한 소규모 위험 시설정비 등 특교세는 공산저수지 돌레길 조성사업, 맞춤형 경보발령 적설계 설치 사업,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 등에 쓰인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군은 앞서 특교세를 확보해 신림면 해안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3억5000만원), 고창 상월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7억원), 무장 짝대제 노후위험 저수지 재당보수·보강 사업(4억원) 등에 활용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지난 17일 완주군 삼례읍 비버너인에서 만경강유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전주시 등 만경강 인접 5개 지방자치단체 '전북의 젓줄' 보호 협의회 구성 협약 체결

전북의 젓줄인 만경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북 5개 지방자치단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손을 맞잡았다.
익산국토청과 만경강에 인접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지난

17일 완주군 삼례읍 만경강변에서 만경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만경강 일대는 생태·문화·역사·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만경강 환경을 보호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을 조성하기 위해 만경강 유역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만경강 전수 시설을 공동 유지·관리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역사·문화·관광 분야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도 동참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북지역 태양광 사업 허가 건수 급증 3년새 10배 ...농지·산림 훼손 등 부작용 속출

전북지역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의 허가가 농업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2015년부터 3년간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건수가 폭증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2015년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건수는 986건에 용량은 118MW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만517건, 허가용량 1845MW로 폭증했으며 올해도 9월말 현재 9057건, 1666M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허가건수의 급증과 함께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각종 문제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의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 시설 주변 주민과의 갈등 확산, 부동산 투기 등이 심각한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농업용 저수지까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서 최근 3년 새 허가건수가 8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수질오염과 주변온도 상승,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생육지장, 경관훼손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가뭄시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상실도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허가 과정의 면밀하지 못한 행정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허가를 내주면서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도 받지 않고 전담부서인 농축수산식품국과도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주=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흥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출범

고용우수 기업엔 자금 지원도

고흥군의 청년 일자리 등 군민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 출범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실에서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홍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경제인협회장, 입주기업 대표, 일자리에 관여하는 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 위원 9명과 일자리 관련 부서장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군에서 추진중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 대상기업과 기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회를 가졌다.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 원과 우수기업 인증

서,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기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은 기업을 잇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설치비 및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날 위촉식과 일자리 사업 심의회로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앞으로 군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심의, 정책제안 등 군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앞으로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각 분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안을 해주 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문의. 010-6834-7400